

순정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항상 깨어 있어야” (마태 25. 13).

연중 제32주일

제 1 독서 : 지혜 6, 12-16

제 2 독서 : 1데살4, 13-18

복 음 : 마태 25, 1-13

강론

“주님과의 안면(顔面)”

박찬길 신부 / 진안천주교회

산상설교 마지막 대목에서 예수께서는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해서 설명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슬기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비가 내려 큰물이 밀려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지만 반석 위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이다(마태7, 24-27 참조).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같은 맥락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된다.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대조시키고 있다. 등불을 가지고 신앙을 찾으려 가는 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 밤중에 신앙이 오니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켜서 마중을 나가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느라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이 기름을 어찌 쉽게 구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삶을 말하기 때문이다. 미련한 처녀들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다. 아무리 “주님, 주님” 부르며 하소연해도 그분은 단호히 외면하신다. 만일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이 신앙고백을 실제로 생활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오늘 복음의 미련한 처녀들의 처지가 바로 우리의 처지가 될 것이다. 그날에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할지라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마태 7, 22-23)라는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심판 때에 주님과의 안면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 안에서 주님을 알아뵈고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도 심판 날에 우리를 알아보실 것이다.

소리


“교육자들이 할 일”

대학입시 날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요즘 고3 교실은 일종의 말기 증상 같은 것들이 넘쳐 흐른다. 노랗게 뜬 얼굴의 학생들이 졸며 지친 심신을 다그치고 있다. 한 학급 60명 선의 숫자에서 열 명 남짓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머지 45명 남짓은 재수를 하거나 군대에 가거나 할 것이다. 열 명 정도가 말하자면 이도저도 아닌 문제아 또는 구제불능인 아이들로서, 입으로 담배냄새를 푹 끼치면서 담임교사에게 ‘조퇴’를 요구하는 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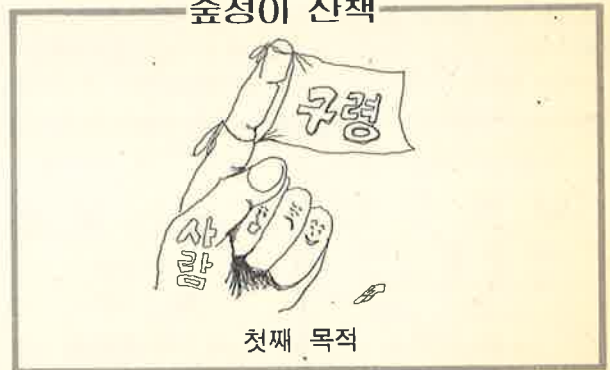
교육이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인가?

가톨릭 교회의 교육관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함을 고양시키고 그 가능성을 계발시키는 것이라고 요약된다. 이런 이념은 가톨릭 재단의 학교에서도 무진 애를 쓰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이론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전교조 몸살이 지나가고 교육현장은 무력감·냉소주의·모색 등이 뒤섞여 하여튼 현실에 충실이나 하자고 굴러가고는 있으나 암울한 세월은 한스럽기만 한데, 전주·완주 지역 ‘가톨릭 중등교육자회’가 창립될 예정이어서 여러 가지로 희망을 주고 있다. 11월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에서 있을 이 창립대회는 가톨릭적 교육 이념을 구체적으로 학교단위에서부터 실천해나가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전주교구 전체로 확대시킬 이 교육자회는 우선 전주·완주 지역을 시작으로 모여 이 시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될 각오이다. 모두 300여 명이나 되는 신자 교사들이 뭉쳐 일할 때 그 성과는 얼마나 값진 것이 될 것인가!

기대와 희망으로 출발하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순정이 산책



첫째 목적

“적절한 시기에 병자성사를...”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많은 경우 침착하고 차분한 영혼으로, 심지어 웃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해성사를 통해 일생의 모든 죄악을 말끔히 씻고 마음에는 한평생 자신을 지켜주신 사랑하는 ‘예수의 몸과 피’를 모시고 그님을 만나러 간다는 이 믿음은 모든 것을 넘어선 여유와 평화를 가능케 한다.

이 병자성사는 사제들만이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으며(교회법 1003조 ①항), 이성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병이 들거나 노령이 되어 죽을 위험이 있을 때 베풀어진다. 성사 후 병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을 앓게 되었거나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해지면 다시 또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본인 스스로 이 성사 받기를 원한 신자에 한해서 수여가 가능하다. 분명한 중죄(重罪)중에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사가 수여되어서는 안된다. 묵시적으로라도 청하거나 수락한 자들에게 주어진다(교회법 1004조~1007조). 이 성사를 요청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될 수 있는 한 의식이 있을 때 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맑은

의식을 갖고 고해성사를 보고 노자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 미루고 미루다가 거의 의식 불명이 되어야 성사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교회법 1001조). 성서는 이렇게 권고한다. “여러분 중에 앓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야고보 5, 14-15). 그리고 이러한 권고에 따라 병자성사의 집행자는 다음과 같은 경문과 함께 병자의 이마와 두 손에 병자성유를 바른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기름 바르는 이 거룩한 예식으로 성인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병자를 도와주소서. 또한 이 병자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 해주시며 그 병고도 가볍게 해주소서”(병자성사 예식 도유 경문).

희망을 안고 미소중에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는가?

미사해설 17

“십자성호의 효력”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십자성호는 이제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잠 자리에 들 때까지 즐기치게 십자성호를 긋는다. 본인이 본인에게 긋는 경우도 있고 가장이 식구에게 또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성직자가 평신도에게 등 다양한 형식이 공존한다. 이마와 가슴 양어깨에 긋는 큰 십자성호와 미사 복음 때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긋는 모습과 같은 ‘작은 십자성호’가 있는데 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하나의 형식들이다. 이러한 방법의 축복예식을 통하여 상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원한다. 사실 진정으로 축복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 그 누가 있겠는가? 단지 하나님께 그를 기원해주기를 기원하는 하나의 기도 형태로 이해해야 된다. 비록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분 자신이 그 누구를 축복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누구의 축복은 어떤 효력이 있고 누구의 축복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축복의 효력이 있고 없고는 축복을 받는 자와 주는 자의 준비(태도)에 달려 있다. 아무런 의식없이 습관적으로 그어대는 십자성호가 그 자체로 축복을 가져올 수는 없다. 예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갈 때에는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릴 만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마태 10, 12-13).

나를 축복해주는 그 축복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준비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가난한 마음일 것이요, 그 누구를 도와주시라고 비는 애절한 마음이라. 나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마에서 다리 끝, 양팔 끝까지 십자성호를 긋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마음을 축복하여주시어 ‘주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작게 그러나 정성껏 십자성호를 긋는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스승은 제자에게, 목자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뜻으로 십자성호를 긋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것-방, 사무실, 부엌-안에, 나의 생명을 언제 어떻게 앓아갈지 모르는 자동차나 여행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비는 마음으로 정성껏 십자성호를 긋는다. 단지 습관적인 행동으로가 아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한중(오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안
☎ 84-7294

신부 부케 전문점

진선미꽃집

이마리아
범디도
☎ 84-2628

웨딩 드레스 전문점

신부의집

최영자(헬레니)
☎ 88-6951
동서관동로 신탁은행 앞

샘물



좋은 생수는 직접 시음을
해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주 85-4205. 군산 64-4481
이리 52-5595

주말 연속극 '몽실 언니'를 보고

김 설 자(바울라)/팔마 성당

모두가 한탕주의에 들떠 있는 세상! 그래서 줄부들의 지나친 허례허식에, 사치에, 과소비에... 이들에 찢기우고, 할퀴우고, 명들어가는 우리 서민들 그리고 소외되어만 가는 계층들. 이로 인해 잔인해져만 가는 범죄. 또한 민생치안의 부재, 정치인들의 니전투고(泥田鬪狗: 개처럼 진흙탕밭에서 벌이는 싸움) 등, 우리네 서민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루해가 바뀌는 생활이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며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T. V. 앞에 앉았다. 가난에 찌들리고 가난 때문에 엄마와도 헤어져 살아야 하는 '몽실이'. 게다가 한쪽 다리마저 불편한 몽실이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순수한 동심을 간직한 채 밝게 살아가는 여덟 살짜리 소녀의 이야기이다. 어린 나이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도맡아 하고 도시에서 세입마까지도 감동을 시킬 정도로 순수하고 순박한 삶을 살아간다. 더욱 공감이 가는 것은 여기 나오는 가난과 투박한 시골 인심이 옛날 우리네 모두의 삶이었다. 이 연속극을 보면서 몽실이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요,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온다. 그렇다, 우리의 역사는 설움과 가난이 짙었던 역사였고 항상 빼앗기기만 하는 치욕의 역사였다. 그래도 우리는 몽실이처럼 참고 또 참고 견디며 이만큼 이룩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좌절할 것인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고 실천함으로써만 이 난국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 구 소 식

- ※ 다음주(18일)는 평신도 주일: 평신도 활동을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1. 사제평의회 회원·지구장·평협 상임위원 연석회의: 13일(화) 오전10시 교구청 회의실.
- 2. 재무평의회: 11월15일(목) 오전10시. 3. 사무평의회: 11월16일(금) 오후7시.
- 4. 축! 견진: 11월18일 효자동 성당 오전11시.
- 5. 휘폴라레 모임: 오늘 오후2시30분 가톨릭센터(중·고·대·일반 남·여).
- 6. 가톨릭 중등 교육자회 창립 총회: 11월24일 14시 가톨릭센터. 대상-전주·완주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가톨릭 신자.
- 7. 전북일보 천주교 고정란(7면) '성당의 종소리' 안내: 12일(월)-전교조를 보는 교회의 눈 (정인섭 선생), 14일(수)한 마을이 변한 이유(최용준 신부), 17일(토)지옥이란?(홍보국)
- 8. 가족계획 자연법 교육(임신·피임을 원하는 분): 11월 13일(화) 10시 가톨릭센터 4층 행복한 가정운동 85-5098. 9. 루갈대회 유요한 순교 기념미사: 11월14일 오후3시 치명자산.
- 10. + 주여!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고 김종택(요셉) 신부 선종: 11월6일 오후6시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1. 노동사제 추모미사(박성중, 이용유, 전미카엘 신부님): 11월14일(수) 19시 중앙 성당.
- ※ 축! 영명: 15일(성알베르토) 오기순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전기 절약 작은 것부터—

밤이 깊어짐과 함께 야간 전기 이용이 늘어났습니다. 복도, 화장실 등 불필요한 장소는 소등하며 야간시는 단일조명(스탠드 등)을 사용하고 가정에서도 안 쓰는 전기 플러그는 빼고 보지 않는 T. V를 켜놓거나 시간을 알기 위해 T. V를 켜는 등의 일들을 자제합시다.

송학동 성전건립 기금마련 축복권 당첨번호

축복상: 281221, 1등: 261918, 2등: 288866
 3등: 262025, 양보상: 261799, 283435
 희생상: 5910, 5855, 행복상: 862
 사랑상: 583, 372, 474, 735, 나눔상: 38(끝자리수)
 본당 건립 기금마련 바자회 축복권 잔치에 협조해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무장 채용

1. 자격: 영세후 3년 이상된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 만 35세~40세의 남자 ※ 컴퓨터 취급능력자 우대
2. 제출서류: 1.영세증명서 1통 2.사관이력서1통 3.호적등본1통 4.본당신부추천서 1통 5.선원보증서(보증인 2명) 1통
3. 제출마감: 1990년 11월 17일까지(전동성당 사무실)
4. 면접일시: 1990년 11월 19일 오전 10시
5. 취무시일: 1991년 1월 1일

천주교 전주교구 전동교회

관운향컴퓨터학원

위치: 금양성당묘. 시립도서관앞
 원장: 박 동 왕 (요한)
 교육상담: 76-1858
 73-0856

관 미래속셈학원

철저한 개인지도
 정 회 연 (다미아노)
 이 경 애 (로마나)
 북부시장 앞
 ☎ 75-2534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눌부보쌈

오 재 천 (안드레아)
 정 봉 교 (마카렐라)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송남
- 남전주지구 중·고학생체육대회: 오늘 해성중·고학교 교정 9시 시시사. 2. 31차 M·E 수발 집회: 16일 5시~18일 7시 교정 9시. 김명선 부부, 박주형·김정옥 부부, 김글라라 수녀 장송
 - 가정방문: 14일-동진1, 2·3반, 금상리 15일-아중리.
 - 모임: 자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오늘 후2시, 부녀회 상임위원회-13일 어머니미사 후, 기도회-목요일 저녁미사 후, 베스라-월10시, 5. 형제회: 17일 후2시, 6. 창단된 L, M: 착한이들의 어머니: 단장-임모니카, 부단장-정유리안나, 서기-유가타리나, 회계-남유스티나.
 - 금주철손: 중노1가 5·6·7반, 차주 철손: 중노1가 8·9반, 8. 축: 18일 12시 신랑-강경권(벨라도) 신부-박명란(마리아), 9. 탈삼미사: 17일 전11시(전도일 씨래) 인후14반.
- 지난주 봉헌금: 822,980원 □ 교무금: 648,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 꾸리아: 오늘 오후2시, 2. 요셉회: 공식미사 후.
 - 청년회: 저녁 미사 후, 4. 연도대회: 14일 저녁미사 후.
 - 부녀회: 15일 오전10시, 6. 구역분과회: 17일 오전10시.
 - 성우회: 18일 공식미사 후, 8. 평신도의 날(18일) 2차헌금 있습니다.
 - 엠프시절을 위한 모금: 서로 협력합시다. 김감자씨 감사합니다.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① 육종만 ② 전정숙
 봉헌-육종만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황만균 ① 오장수 ② 경강선
 봉헌-오장수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11,410원 □ 교무금: 1,017,4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 평신도 주일: 다음주(2차헌금).
 - 청년회·성가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성경읽기: 에메미아 31장-40장.
 - 금주 전례: 해설-김경재 독서 ① 여정진 ② 장영미
 봉헌-강분옥, 황옥설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송봉덕 독서 ① 강덕용 ② 김순이
 봉헌-정영만, 이완봉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98,270원 □ 교무금: 211,5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 11월은 위령성월! (연중제32주일).
- 회의: ① 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 프란치스코 3회-오늘 오후2시 ③ 성심회-11월13일(화) 오후2시.
 - 모임: ① 전례부-오늘 저녁미사 후 ② 율트레아-11월14일(수) 저녁미사 후.
 - 알림: ① 가정방문-11월14일(수) 23반, 송원APT반, 11월21일(수) 24반, 25반, ② 예비자를 인도합니다-교리시간 매주일 공식미사 후(성인반), 매주토요일 오후6시30분(학생반). * 화생반교리시간 변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③ 초동부교리 교사 성탄연수-11월10일~11일 명목적십자 연수원.
- 지난주 봉헌금: 534,550원 □ 교무금: 507,000원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 위령성월입니다.
- 신자들을 위한 특별교리 안내: 매주 토요일 7시30분(견진성사를 안 받으신분은 빠짐없이 참석바람).
 - 중·고등부 체육대회: 오늘 해성학교 오전9시~오후5시(도와추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 베르니카회 모임: 공식미사 후.
 - 사목회 각본과 위원장·각 단장(신심단체포함)장: 내년도 사업계획서 작성해 주세요-11월말까지.
 - 청소봉사: 서안산동 1가 서면.
 신축현금 수입액: 21,874,000원 입금: 15,823,000원
- 지난주 봉헌금: 336,210원 □ 교무금: 524,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홍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 성전보수헌금 바랄.
- 사목회: 오늘 오후2시.(중식후), 2. 자모회: 오늘 오전11시, 3. 성모회: 14일(수) 오전11시, 4. 구역장·반장회: 1일(목) 오전11시, 5. 보좌신부님 영명축하식: 오늘 공식미사 후, 6. 청년연합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7. 청년연합회 등반대회: 11월25일 만덕산-9월15일 영세하신 젊은이들과 함께, 8. 성심유치원 원아모집: 원서교부 12월1~5일, 접수: 일~7일, 9. 사무장 채용 광고: 숲정이 및 본당 게시판 참조
- * 금주보수비헌금액: 1,196,394원 * 현재모금총액: 166,818,614원
 * 금주보수비입금액: 470,000원 * 현재입금총액: 237,174,618원
 □ 지난주 봉헌금: 1,233,32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병환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호

- * 차기사목회장 추천: 오늘(11일)까지.(투표는 25일). *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교리시간 안내-신부님반: 매주수요일 저녁시, 수녀님반: 매주 일요일 오전9시, 학생반: 매주토요일 저녁시. * 자연건강교육: 25일(일) 공식미사 후 부터-26일(월)까지, 회비-3,000원. 접수-사무실, 1. 제대회: 공식미사 후, 2. 가정방문일정: 14일(수) 오후-17·18반, 15일(목) 오전-21반, 오후19·20반, 3.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청년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5. 다음주일은(18일) 평신도주일 2차헌금, 6. 금주 전례: 김광탁 복사-박명환, 김나갑 봉헌-송봉덕, 차주 전례: 문치구 복사-서영상, 최춘봉헌-김광태 부부. * 본당은 우리의 가정, 교무금은 미루지 말고 봉헌합시다
 □ 성전신축 2차신입액: 40세대-3,400만원.
 □ 지난주 교무금: 462,400원 □ 교무금: 555,000

* 화산동

사제관 221-9813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근

- 사목회: 공식미사 후.
-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청소봉사: 자비의 오후Pr.
- 금주 전례: 해설-최정순 독서·봉헌-함용광 부부
 차주 전례: 해설-한병갑 독서·봉헌-구양수 부부
- 성가연습: 미사시작 15분전(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종훈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김태훈
 사목회장 황수선

- 견진성자: 18(일) 11시 미사중에 * 9일기도 9(금)-17(토)까지, 집중교리: 13,14,15,16(화~금) 오후7시 미사 후(당), 당일 견진대상자의 모든 신자들은 다른 미사를 참여하지 바람(성당이 협소해서 견진대상자와 대부·대모도 성당안에 용이 어렵습니다), 2. 성지 순례 무사히, 질서있게 잘 다녀오시. * 협조에 감사합니다(지난 주일7시-21까지), 3. 로사리: 모후 꼬미씨을 신하 전 단원 교육(오늘 오후2시~6시까지(당)). * 많은 참여 바람, 4. 장례를 세대별로 봉헌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현재 봉헌: 10세대, 봉헌액: 1,290,000원) 사할님, * 의자 5인용 80,000원, 4인용 75,000원, 5. 모임안내: ① 율트레아, 안나회 - 오늘 11시 미사 후 ② 1성구회 마지막 주(교대)로 옮김, 6. 성당 장례를 제 공사를 위한 헌금: 97,320원 협조에 감사.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 율트레아: 공식미사 후, 2. 돌담회 정기총회: 저녁6시,
- 은혜의 밤: 16(금) 오후10:30~17(토) 새벽4:30 초청강: 광주교구 장용희 회장의 2명,
- 판공서사: 13(화) 거성, 정출 14(수) 남양연립, 한성 15(목) 데하 16(금) 후2시 두현리, 8시 현대5,
- 연도대회: 19(월) 오후7:30,
- 가정방문: 신부님 13(화) 롯데8반, 14(수) 광진전주반, 수녀 13(화) 우전2,14(수) 송정,15(목) 중앙,16(금) 상산고 뒷목 신축현금 총신입액: 53,850,000원 지난주 신입액: 3,300,000, 차주 모임: 사목회, 새벽회,
 금주 전례: 해설-김인규 독서 ① 송재만 ② 이화선
 기도 ① 박종원 ② 김난희
 차주 전례: 해설-박명래 독서 ① 백남규 ② 박명자
 기도 ① 김자옥 ② 홍순남